

건축사(建築史)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

How is the History of Architecture Written?

김정동 / 목원대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by Kim Jeong-Dong

개항 이후 들어 온 건축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신건축은 1876년 개항 이후부터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전에는 없던 것으로 당시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건축양식이 유입된 것이었다. 이 신건축 양식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도입해 온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에서 타율적으로 흘러들어 온 것이었다. 이는 체제와 생활·기능 등이 서구화함에 따른 불가피한 일이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전통건축에 머물러 있던 우리 건축은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우리는 먼저 서구의 건축을 받아들인 중국·일본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일본 역시 초기에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다를 바 없었다. 서양의 건축물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빨리 서구건축을 일본화시켰다. 소위 신문명·신문화 수용의 태도에서 적극적인 면을 보였던 것이다.

우리는 신건축 유입 초기시대인 19세기 말,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 이미 들어 와 있던 서구식 건축물을 답습하고 있었다. 부산, 인천 등 개항장의 공관·상업 건축물들이 그 예였다. 또한 유럽의 가톨릭 신부를 통해 중국에 들어 와 있던 서양식 건축물을 받아 들여 성당, 주교관 등의 종교건축물을 세워 나가기 시작했다. 중국으로부터 그 경험이 있던 건축가와 시공자가 와서 그 일들을 했다.

일본은 부산 개항 이후 1879년 왜관 자리에 영사관을 세웠다. 이후 1880년대 초 원산을 위시로 해서 각 개항장에 소위 의양풍(擬洋風) 목조 2층 공관 건물들을 세웠다. 서양의 돌과 벽돌을 사용한 것이 아닌 목조에 의한 화양(和洋) 절충식 건축물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일본 역시 서양건축을 직접 설계해 세울 수 있는 건축가와 건설업자는 없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의 건축가가 직접 일본에 와 신건축을 세워 주었고 건축교육도 시켜 주었다. 이후 그들로부터 배운 일본인 건축가가 우리나라에 들어 와 화양풍(和洋風)의 건축물을 세운 것이다. 공관시설, 군사시설, 철도시설 등이 그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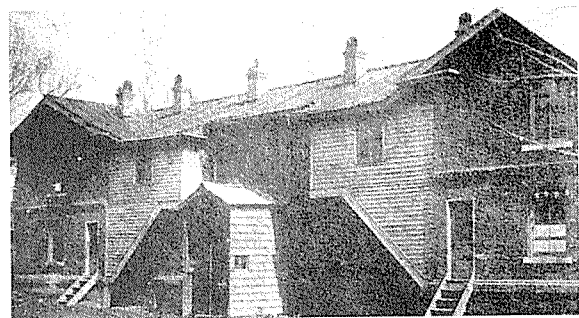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 후 일제는 곧 야욕을 들어 내 우리 땅을 자신들의 병참기지화 시키려 했다.

청일전쟁(1894~1895)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다. 러일전쟁(1904~1905) 준비도 이때부터 이뤄지기 시작했다. 전쟁 중 건축물과 건축가는 그 도구로 인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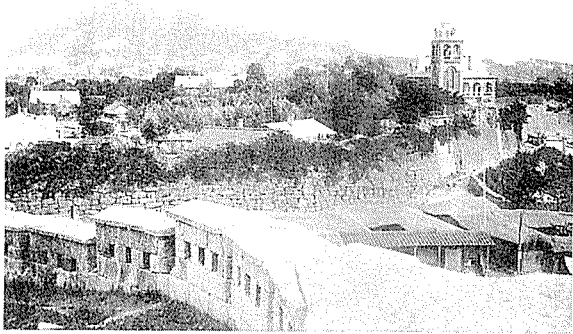
우리의 건축 시설도 초기에는 비교적 서구 건축을 직접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건축가들이 직접 우리나라에 건너 와 그 목적에 맞는 건축물을 세워 나갔다. 외국인 건축가는 그들 자국의 건축을 가지고 온 것이었다. 종교관련 시설, 학교, 병원, 오피스, 주택 등이 그것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이양건축(異樣建築)'이라 부르고 있다. 그들이 가져 온 설계도면, 공법, 재료 등은 우리와는 달라서 세워지는 것과 사용하는 것 모두가 놀라운 것이었다.

1880년대 이후 신·구 기독교의 유입에 따라 배재학당 당사(堂舍)와 기숙사(1887), 천주교 명동 주교관(1889), 약현성당(1892), 명동성당(1898), 정동교회(1898) 등의 르네상스풍, 고딕풍 건물들이 세워졌다. 이로써 서울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전통건축물 사이에 들어서는 서양식 건축물은 1900년대 즉 20세기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나라와 외교가 수립되며 각국 건축에 맞춘 공관들도 들어서기 시작했다. 영국(1892), 러시아(1895), 프랑스(1896), 독일(1901), 벨기에 영사관(1905) 등이 그것이다. 르네상스식 벽돌 2층 건물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식의 건물은 서울의 기존 도시질서를 바꾸어 놓는 것이었다. 이즈음 한옥과 양옥 절충의 절점이 서울의 북촌 종로 등에 생겨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었다. 이것은 우리 자생력에 의한 구도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도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기 자생적 건축가가 탄생했다. 그는 서울 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심의석(沈宜碩, 1854-1924)이었다. 그의 당



배재학당 기숙사, 2층 목조 건축물 (자료: 배재 80년사)



오른쪽이 프랑스 공사관, 서대문 성벽과 어울린다. 1903년의 풍경이라 생각된다. (자료: 關野 貞)

시 활동은 유럽, 미국 건축가의 간접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가 독립문(1897)을 세운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는 서양 건축물을 눈썰미로 배운 것이었다.

아관파천(俄館播遷) 중 고종은 환국을 위하여 경운궁(덕수궁)을 중건하게 되면서 그 구내에 몇 개의 서양건축물을 세워 나갔다. 그 중 현존하는 건물이 1900년에 세워진 중명전과 정관헌이다. 가장 규모가 큰 건축물로 현존하는 석조전(1909)은 통감부 시대에 세워진 것이다.

러일전쟁 직후인 1905년 우리는 일제와 을사 보호조약을 맺음으로써 식민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외교권이 박탈당하며 반 식민지화 되자 건축도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왜식화 되어 갔다.

우리 전통 건축은 1894년 갑오경장 시 최초의 근대적 건축조직인 군국기무처 공무이문(工務衙門)의 건축국(建築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일제 통감부 시대가 들어서는 1906년까지는 궁내부 영선사(營繕司)로 역할했다. 1911년에는 이왕직(李王職) 소속으로 바뀌어 명맥을 이어간다. 그러나 이 조직은 새로 들어서는 신건축을 세우는데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일제는 탁지부(度支部) 건축소(建築所)를 두고 새로운 관아건물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때 많은 일본인 건축가를 침투시켰다. 건축의 식민화 기점은 이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세워진 바 없었던 위용을 갖춘 근대건축물들이 서울을 비롯한 개항장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의정부 청사(1907), 공업전습소 본관(1907), 대한의원 본관(1908) 등이었다. 건축소는 1910년 한일합방 때까지 존치되었고 이어 조선총독부 기관으로 바뀌었다.

일제하의 건축

1910년 한일합방에 의해 우리 땅이 일제의 손아귀에 들자 일제의 건축물은 마음대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새로운 행정 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일제에 예속되며 우리는 일본 신건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덕수궁 내·외부에 이왕관이 들어서고 있다. 왼쪽이 궁 밖에 세워진 의정부 청사, 오른쪽이 궁궐 내에 세워진 양관(자료: 국사편찬위원회)

1916년에서 1926년까지 10년간 걸쳐 세워진 총독부 건물은 규모가 가장 큰 것이었다. 한국은행(1912), 서울역(1925), 그리고 서울시청(1926)도 그 일환이었다. 이 때까지도 우리는 새 양식의 건축을 스스로 실현할 건축가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제는 건축 식민화를 본격화하며 1916년 경성고공을 설립, 우리 건축가를 일부 양성했다. 이때까지는 1907년 개소한 공업전습소가 졸업생을 내는 정도였다. 그러나 그 영향은 아주 작은 것이었다.

1922년 일제는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건너온 건축가와 고공 졸업생을 중심으로 조직화를 시도했다. 이것이 '조선건축회'였다. 창립 회원 122명 중 우리 나라 건축가는 김응순(金應純) 한 사람뿐이었고, 이듬해에 10명이 가입하였는데 대부분은 1919년 한국인 첫 졸업생을 낸 경성고공 출신들이었다. 조선건축회에서 낸 기관지가 「조선과 건축」이었다. 당시 가장 영향이 큰 건축 저널이었다.

1920년대에는 모더니즘 양식, 즉 근대주의 건물이 개별적인 형태로 세워지기 시작했다. 일제하 교육을 받은 우리 건축가들은 그들의 식민화 건축 활동에 도구로 존재했다. 우리의 건축은 일제에 의해 주도되었기에 우리의 건축이라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고공 출신들이 1945년 해방 이후 우리 건축에 일선에서 활약했다.

1930년대 초부터 우리 건축가에 의한 설계된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박길룡(朴吉龍, 1898~1943)은 우리 건축을 개척한 선두(先頭) 건축가였다. 그는 우리 사회와 자본의 지원으로 몇몇 건축을 세워 나갈 수 있었다. 박동진(朴東鎭, 1899~1980), 박인준(朴仁俊, 1892~1974), 강윤(姜洵, 1899~1974) 등도 박길룡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박길룡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김연수 주택(1929), 경성제국대학 본관(1931, 한국문예진흥원), 화신백화점(1937) 등을 들 수 있다. 박동진은 보성전문학교 본관(1934, 고려대), 도서관(1937), 중앙고등학교 본관(1937) 등 석조 건축의 선두주자였다. 강윤의 경우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건축가 보리스(William Merrell Vories, 1880~1964)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태화기독교사회관(1939)과 이

화여자전문학교의 음악당·본관·기숙사 등이 그것이다.

박인준은 유일한 미국 유학생이었다. 그를 통하여 미국식 건축이 도입되었으나 일제하 그의 건축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선교사, 외교관을 위한 양옥주택에 전념했다. 그 외 김순하(金舜河, 1901~1966)의 전라남도 도청 및 강당(1932) 등이 있다. 우리 주택은 서구화, 왜식화의 물결에 밀려 전통목조건축의 아름다움을 잃어 갔다. '서구의 것만이 아름답다'는 인식이 건축가와 국민 사이에 퍼졌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보존 계승해 나갈 수 없었다. 일제 양식이 서구화의 건축물로 잘못 인식되어 그대로 받아 들여졌던 것이다. 소위 화양절충양식이 주택건축에 주류를 이루었다. 한양절충식양식도 일부 뜻 있는 건축가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극소에 불과했다.

우리 건축가들 일부가 일본에서 배워 돌아왔다. 그들에게 새로운 양식의 구현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만주, 대만 등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었다.

1920~1930년대 합리주의적인 건물들이 세워진다. 경성전기주식회사(1929), 상공장려관(1929), 부민관(1935) 등이 그것이다. 1928년경부터는 한편으로 건축에 조선의 향토적 정서를 포함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역사(驛舍)라든가 박물관 등에서 채택되었다. 한양(韓洋)양식의 의도적 결합이었다. 1930년대 후반 일제가 전쟁에 몰입되는 순간 건축의 양식이라던가, 발전은 완전 정체되었다. 군국적(軍國的) 보조 건축물이 세워지고 단순화되었다.

1945년 8·15 해방을 맞아 우리는 새로운

해방 이후의 건축

시대를 맞는 작업을 펼쳐 나갔다. 그 첫 번째 시도는 '조선공업기술연맹'의 결성이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 17일 발족한 이 연맹은 산하에 8개 부서를 두었는데 건축부가 이에 포함되었다. 같은 해 9월 1일 '조선건축기술단'이 이어서 결성되었다. '조선주택영단'도 업무를 속개했으며, '국민주택 설계도안'을 공모했다. 이 공모에서 김희춘(金熙春, 1915~1993), 이희태(李喜泰, 1925~1981) 등이 입상한다.

「조선건축」이 창간(1947.3.20)되었다. 현상설계의 본격적 기원이 될 서울 만물전 설계 공모에는 김태식(金台植, 1917~), 강명구(姜明求, 1917~) 등이 면모를 나타냈다(1947.10.2). 그러나 곧이어 미군정이 시작되며 이제는 미국 양식이 범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건축도 미국 오리지널 건축이라기보다는 미 공병대에 의한 간이건축 형식일 뿐이었다. 경제 자체가 미국으로부터의 원조였기에 독자적 건축 노선 향유는 어려운 것이었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러시아의 영향 속에 들어갔다. 동구적(東歐的) 요소도 포함되었다. 평양의 복구 작업은 러시아의 영향 속에 이뤄진 것이다. 6·



전쟁으로 일부 벽과 탐만 남은 러시아 공사관, 건축역사보다 하루살이가 더 중요했다. (자료: 한영수)

25전쟁으로 남북건축은 완전 괴리되었고 건축적 교류는 단절되었다. 남과 북의 도시와 건축은 모두 초토화되었고 괴멸되어 갔다. 전통건축물도 신건축물도 모두 뿌리째 뽑히는 것이었다.

전란 중 건축가들은 임시수도였던 부산 동래에 피난처를 마련, 전후 복구사업에 매진했다. 휴전이 되자 남북한은 각각 전후 복구사업에 매달리게 되었다. 미국 원조에 의존하는 건축 그리고 졸속건축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모든 파괴된 건축물을 개·보수, 증축하는 정도가 196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다.

1954년에는 '대한건축학회'가 '조선건축기술단' 후신으로 발족하였고, 1954년 국전(國展)에 건축부가 신설되었다. 대한건축학회는 1955년 국전 건축부 출품작을 이례적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그 작품은 대구시청, 서울 만물전, 남대문 예배당, 국군 총훈탑, 주택, 공군본부 청사, 이화여자대학 강당, 이화여자중고교 강당, 서울특별시 의사당, 우남회관(粵南會館) 등 10점이었다. 1957년에는 '한국건축가협회'의 전신인 '한국건축작가협회'가 조직되었다.

1959년 시행된 남산의 국회의사당 설계도안 현상모집은 김수근(金壽根, 1931~1986)과 박춘명(朴春鳴, 1924-) 등 일본에서 신건축을 배운 신세대가 이 땅에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5·16혁명 이후의 건축

1961년 5·16으로 시작되는 1960년대는 경제개발과 더불어 건설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혁명 이후 건축에 관한 제 법규가 모두 새로 급조되었다. 한국건축가협회는 1963년 UIA(국제건축가연맹)에 가입한다.

1965년은 우리 현대건축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건설시장은 월남, 사우디로 확장되어 되었다. 「공간(空間)」지의 창간(1966.11)은 우리 현대건축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했고 우리 건축을 스스로 기록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1966년 경복궁의 국립박물관, 1967년 부여박물관 건축 양식 논쟁은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1960년대의 주요작품으로는 서울 시민회관



1964년의 프랑스 대사관과 김종업
(자료: 동아일보사)

1964년의 자유센터와 김수근
(자료: 동아일보사)

(1961, 이천승)과 프랑스대사관(1962, 김종업), 워커힌 각 동 (1962, 김희춘 외), 명동성모병원(1963, 김정수), 한양컨트리 클럽(1964, 이광노), 예총회관(1964, 강명구), 자유센터 (1964, 김수근), 남산 시립도서관(1964, 이해성), 제주대학교 본관(1964, 김종업), 조흥은행 본점(1964, 이천승·정인국 외), 유네스코회관(1966, 배기형), 경기도청(1967, 김희춘), 복자기념성당(1967, 이희태) 등이 있다. 이들 중 김종업과 김수근은 우리 현대사 최초의 대중적 건축가로 떠올랐다.

1966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의 현상설계는 나상진(羅相振, 1923~1973)을 뽑아 놓고도 미국 '피에이(PAE) 인터내셔널'에 설계를 내주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다. 우여곡절 끝에 1970년 새 청사는 준공되어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를 가로막았다. 세종문화회관이 그 라인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던지도 모른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념적 공공건물의 등장과 대형화,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주제가 되었다. 이 년대는 고층 건축시대를 예고해 주었다. 정부종합청사의 준공, 삼일로 빌딩의 준공 등은 그 시대의 모습으로 상징지어졌다. 국립극장(1973, 이희태), 여의도 국회의사당(1975, 김정수 외), 세종문화회관(1978, 엄덕문) 등은 건축의장적 측면에서 동방생명빌딩(1976, 박춘명), 대우센터(1976) 등은 기업의 신 사옥 시대로의 의미를 가진 작업이었다. 한편 와우 아파트 붕괴(1970.4.8), 대연각 호텔 화재(1971.12.25)사건은 이 시대의 조약성을 상징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었다.

1980년대는 대한생명 63의 착공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건축대전은 1982년 새로이 탈바꿈되어서 나타났다.

1980년대 초 우리 근대건축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는 우리 건축의 근대화 문제, 식민성 문제 그리고 보존 문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건축사(建築史)를 보존하고 재생하는 운동'은 이 시기에 중앙청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재사용키로 한 국무회의 의결(1983.3.16)이나 화신백화점의 보존 운동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관심을 끌게 했다. 이는 국민들 뿐 아니라 건축

가 자신들에게도 관심의 폭을 넓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198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나타난 현상은 도심을 재개발하는 측면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아울러 갖게 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심 재개발은 서울을 대대적으로 확장시키고 고층화시켜 나갔다. 도심에서의 본격적 재개발은 1960년대 청계천 복개 등 무계획적 발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도로 고가화, 상가개발은 서울의 고도적 측면을 무시한 행위였다. 이후 1980년대 을지로 2가 구역 재개발사업(1983.5)은 물량주의적 작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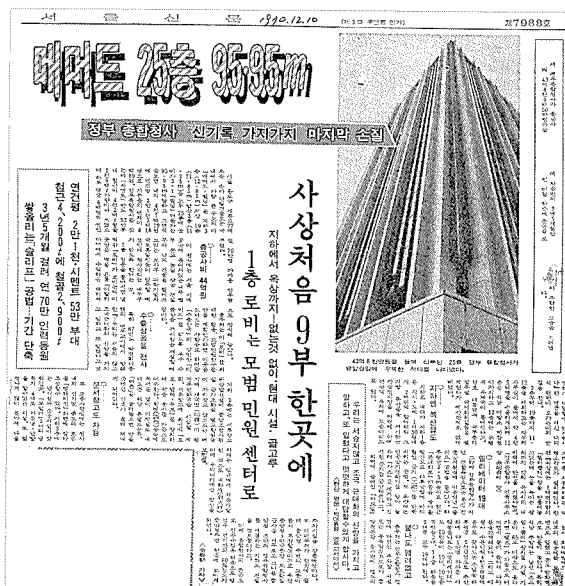
1986년에는 아시아 경기대회 그리고 1988년에는 올림픽을 서울에서 갖게 되었다. 처음 국제 사회의 인식권에 들었던 것이다. 국립경기장 선수촌, 기자촌, 올림픽공원 등은 우리 건축이 세계에 알려지는 첫 경험이었다.

1988년 2백만 호 주택건설에 따른 분당, 일산 등의 '모래성' 주택 정책은 여과도 거치지 못하고 강행되었다. 그 후유증은 건축 전 분야에 퍼졌다.

서울에 국제그룹 사옥, 중앙일보 신 사옥 등이 들어서며 면모를 바꾸는 것은 국외 건축가들의 한국 무대진출의 한 현상이란 점에서 시비가 엇갈렸다.

1990년대는 우리 모두가 동참한 시대이다. 공동책임의 시대가 온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1993년 청주 우암상가아파트의 붕괴, 서울 강남의 삼풍백화점(6.29, 17:50) 붕괴 사건은 물량시대, 정신 황폐화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1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건축의 발전은 더욱 요원해지고 어떤 것은 오히려 후퇴했다. 본질적인 사명감이란가, 도덕성에 있어서 그렇다.

정부도 스스로 부른 화였다. 청와대에서 남산에서, 여의도에서 광화문 한 복판에서 또 다시 큰 것은 부서져 나갔다. 우리 모두는 경험도 여과되지도 않은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에 빠져 지내는 동안 1990대도 이미 지나가고 있다.



정부 종합청사는 모든 매스컴의 시선을 모았다. 그런 일은 건축계 유사이래 처음이었다. 당시의 한 뉴스 기사 (자료: 서울신문, 1970.12.10)